

전염성질환			번호: 1 - C - 2		
제 목	국문	급성 전염성 질환 역학조사의 결과 산출에 있어서의 OR, POR and PRR의 유용성 평가			
	영문	The availability of OR, POR and PRR in outbreak data of acute infectious diseases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박수경 ¹⁾ , 이관 ²⁾ , 고운영 ³⁾ , 이상원 ³⁾ , 임현술 ²⁾ 1)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2)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3) 국립보건원			
	영문	Sue Kyung Park ¹⁾ , Kwan Lee ²⁾ , Unyeong Go ³⁾ , Sang-Won Lee ³⁾ , Hyun-Sul Lim ²⁾ 1)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Konk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Danwol-dong 322, Chungju, Chungbuk-do 380-701, South Korea, Suepark@kku.ac.kr, 2)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Suckjang-dong 707, Kyongju, Kyongbuk-do 780-714, South Korea, 3) National Institute of Health, Nockbeon-dong 5, Enpyong-ku, Seoul 122-701, South Korea.			
분 야	역 학 전염성질환	발 표 자	박수경 일반회원	발표형식	구 연
진행상황	연구중 → 완료예정시기: 2002년 10월	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지역사회에서 급성 전염성 질환 유행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원인적 인자에 대한 상대 위험도 산출에 있어서 OR, PRR, POR을 혼용하여 쓰는 경향이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측정 방법에 따라 산출된 위험도 간 차이가 있는지를 증명하여 이러한 사건에 대한 결과 산출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2001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집단 발생된 콜레라 역학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유행의 중요한 위험 인자 중 하나인 음식물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위험도 산출방법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였고, 그 결과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으며, 위험 인자의 폭로율에 따른 각 위험도 간 차이를 그래프로 그려 이에 대한 차이를 시각적으로 평가하였다.</p> <p>3. 연구 결과</p> <p>세 가지 위험도는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되었으며, 위험 인자의 폭로율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, 위험도 간 차이가 발생되었지만 폭로율이 중간정도인 경우는 위험도가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.</p>					

4. 결론

급성 전염성 질환 유행에 대한 위험인자 평가에 있어서 OR, PRR, POR을 혼용하여 쓰는 것은 결과에 차이를 유발하여 잘못된 결론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, 유행 질환의 발행 형태나 유행 발생시 대상자를 어느 정도 포함한 자료인지를 평가하고 또한 폭로율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위험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.